

•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 중에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누리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와 아버지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새 한 주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기쁨으로 활기차게 찬양합니다.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하셔도 좋습니다)

추천 찬양: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 힘있게 성경을 읽읍시다.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편 62편 1-8절, 고난 중에 임하는 참 평안!

• 읽은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 1) 본문을 2-3차례 더 읽어보세요. 다윗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지,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한지 함께 나눠 보세요.
- 2) 본문 1-2절과 5-6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표현이 소소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의 변화를 통해 발견되는 다윗의 심경이 어떠한였는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눠 보세요.

• 본문 말씀 나눔 (가장 혹은 예배 인도자가 대표로 읽으세요.)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된 표제어들이 많이 발견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언급된 시가 대략 70여 편이 있다고 하니 시편의 주된 저자로 다윗을 지칭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린 만족과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평생에 함께 해 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노래함으로 온 땅과 하늘 위에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다윗이 누리고 맛본 기쁨과 평강을 함께 경험할 뿐만 아니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시편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 - 고난 속에서 싹튼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으나 그의 전 생애 동안에 그가 겪었던 삶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전 생애는 한 마디로 고난과 굴곡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내었고, 사울 왕의 핍박으로 십수 년을 광야에서 유리하였으며,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생의 오랜 기간을 유혈이 난무한 전장에서 보내었으며, 왕이 되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측근들의 배신과 공격에 마음의 고초를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의 삶은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탱하지 못한 채 바람처럼 흩날려 버릴 수많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생의 순간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이 그 곁에 함께 계셨기에, 그 하나님이 연약한 다윗을 오늘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다윗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62편 역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다윗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적들이 일제히 자신을 에워싸 공격해 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이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죽이려 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 순간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하며 인생의 모든 환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참으로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부와 능력, 지위와 명성, 권세 중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심을 바랄 때에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심을 기억하였을 때, 다윗은 더욱 담대히 보다 힘차게 그 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5절)

인생은 누구나 살아가며 높아짐과 낮아짐을 함께 겪게 됩니다. 다윗이 높아진다 해서 교만치 않고 낮아진다 해서 절망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그 분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시기에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처한 모든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고난 중에 만날 위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분을 바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영혼 안에 가득하기를 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넘쳐 나기를 소원합니다.

• 함께 기도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돌아가면서 혹은 대표자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하세요.